

李璟協의 「六甲十王願佛歌」研究

金 周 坤*

—〈차 례〉—

I. 緒 論

Ⅲ. 作品에 나타난 佛教思想

Ⅱ. 極樂과 地獄

Ⅳ. 結 論

I. 緒 論

佛教歌辭의 연구는 歌辭文學의 총체적 모습의 파악과 韓國 古詩歌 正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에 대한 既存 研究를 보면, 韓國 佛教歌辭의 發展過程을 밝힌 研究¹⁾, 古小說 鄉歌 歌辭 작품에 나타난 佛教思想을 추출한 연구²⁾, 佛教歌謠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³⁾, 佛教歌辭에 나타난 思想 研究⁴⁾, 佛教歌辭의 作家 또는 作品 研究⁵⁾ 등이 있고, 韓國佛

* 경산대학교 교수

1) 李相寶, 〈佛教歌辭의 研究〉(上), 《國語國文學論文集》第7·8輯, 東國大, 1969.

——, 〈韓國佛教歌辭의 研究〉(下), 《明大 論文集》第3輯, 明知大, 1970.

——, 〈韓國佛教歌辭의 歷史的 考察〉, 《明大論文集》第4輯, 明知大, 1971.

2) 金起東, 〈國文學의 佛教思想 研究〉, 東國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6.

3) 金聖培, 〈韓國佛教歌謠의 研究〉, 東國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6.

4) 姜學榮, 〈韓國佛教歌辭에 나타난 淨土思想研究〉, 明知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1.

高光榮, 〈佛教歌辭에 나타난 諸思想研究〉, 國民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4.

拙 稿, 〈懶翁歌辭에 나타난 淨土思想研究〉, 《慶山大學論文集》第8輯, 1990.

敎歌辭의 形成背景 作家 作品 思想 形式的 特性 등을 綜合的으로 研究한 論文⁶⁾도 있다.

本稿는 《韓國佛教歌辭全集》⁷⁾에 들어 있는 李璟協의 作인 「半回心曲」·「六甲十王願佛歌」·「八相歌」·「念佛歌(Ⅱ)」 등 4편의 佛教歌辭 중 「六甲十王願佛歌」에 나타난 佛教思想을 살펴 보려 한다. 불교가사의 作者 中에는 이름은 있어도 行적을 알 수 없는 이도 있고, 대체로 이름조차 없는 실명씨들이다. 佛教歌辭의 作者는 스님들이 대부분이며, 간혹 선비들도 있으나 그들은 불교신도이거나 아니면 불교에 호의적이거나 조예 깊은 자들로 볼 수 있는데, 李璟協 역시 이에 해당되는 작가이다. 그리고 「六甲十王願佛歌」는 十惡業을 지음으로써 가게 되는 지옥의 十王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나서, 發願懺悔와 六字念佛을 지성으로 하여 極樂世界로 갈 것을 권하고 있는 작품이다. 현재 세상풍조(世風)는 퇴폐하여 空前의 浩劫災難을 빚어내고 있고, 이 때문에 生靈들이 塗炭에 빠지고 있다. 이에 「六甲十王願佛歌」를 연구하고 보급함으로써 天道를 받아 性理의 깊은 뜻을 闡揚하여 末世의 大同世界에서 無明으로 인하여 악탁한 사회를 영구히 맑게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極樂과 地獄에 대해 살펴보고 나서 「六甲十王願佛歌」에 나타난 佛教思想을 考察하는 순으로 論議를 전개하려 한다.

-
- _____, 〈佛教歌辭에 나타난 無常思想研究〉, 《大邱語文論叢》第9輯, 1991.
 _____, 〈佛教歌辭에 나타난 淨土思想考察〉, 《大邱語文論叢》第10輯, 1992.
 _____, 〈佛教歌辭에 나타난 因果思想研究〉, 卞廷煥博士 華甲記念, 《韓國學論叢》, 1992.
 _____, 〈佛教歌辭에 나타난 勸佛思想考察〉, 《嶺南語文學》第21輯, 1992.
 _____, 〈韓國佛教歌辭에 나타난 孝思想 研究〉, 《嶺南語文學》第28輯, 1995.
 _____, 〈佛教歌辭에 나타난 忠思想 研究〉, 《慶山語文學》, 第1輯, 1995.
 5) 具壽榮, 〈懶翁和尚의 西往歌 研究〉, 《國語國文學》第62·63(合), 1973.
 金鐘雨, 〈懶翁과 그의 歌辭에 대한 研究〉, 《釜山大 論文集》第17輯, 1974.
 金基卓, 〈懶翁和尚의 作品과 歌辭發生 淵源考察〉, 《嶺南語文學》第3輯, 1976.
 崔康賢, 〈鏡虛禪師와 그의 歌辭에 對한 考察〉, 《首都工大 論文集》第3輯, 1971.
 拙稿, 〈回心曲 研究〉, 《大邱韓醫科大學論文集》第4輯, 1986.
 _____, 〈箕說因果曲研究〉, 《嶺南語文學》第24輯, 1993.
 _____, 〈「善心歌」研究〉, 《語文學》, 第59輯, 1996.
 6) 金周坤, 〈韓國佛教歌辭研究〉, 大邱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1.
 7) 李相寶, 《韓國佛教歌辭全集》, 集文堂, 1980.

Ⅱ. 極樂과 地獄

1. 極 樂

極樂 阿彌陀佛의 淨土로서 불교도의 이상향인 佛國土·安養·無量壽佛土·無量光佛土·無量清淨土라고도 한다. 극락은 즐거움만이 있는 곳(樂有)이며, 이 즐거움은 아미타불의 本願에 의해서 성취된 깨달음의 즐거움이다. 《阿彌陀經》에 의하면, 극락세계는 이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 억 佛國土를 지나서 있는데, 현재 아미타불이 설법하고 있다고 하며, 여기에 태어나는 사람은 몸과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이 있다. 이 세계는 일곱 겹의 欄楯, 일곱 겹의 타아라나무기둥이 있고, 방울과 금·은·유리·수정의 四寶로 장식되어 있다. 이 네가지 보석에 산호·마노·호박을 더한 칠보로 만든 연못이 있으며, 여기에는 여덟가지 공덕을 구비한 물과 황금의 모래가 깔려 있다. 또한, 하늘에서는 음악이 들리고 대지는 황금색으로 아름다우며, 주야로 세번씩 천상의 꽃이 떨어진다. 백조·공작·앵무 등의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그대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노래로서 이 노래를 듣는 자들은 모두 佛·法·僧의 三寶를 생각한다. 이 국토에는 地獄·畜生·死神이라는 명칭이 없고, 깨달음을 얻은 阿羅漢이 수없이 많으며,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사람도 한량이 없다.

極樂을 일반적으로 서방정토라고 하는 것은 인도 사람들이 방위와 시간을 일치시키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인도 사람은 동쪽으로 서서 앞쪽을 과거, 뒤쪽을 미래라 한다. 따라서, 극락은 내세에 왕생할 세계이며, 그것은 서방에 존재하여야 했던 것이다. 또한, 娑婆世界와의 거리를 ‘기천만 기십만’ 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阿彌陀經》에서는 십만억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중국에서 상용된 최대의 숫자가 억이었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세속적인 현실과 단절된 것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10만8천 국토를 지나야 극락세계에 이른다는 설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

라의 고승들은 이를 공간적인 거리로 보지 않고, 마음 속에 있는 十惡과 八邪를 없애버리면 곧 극락이 된다고 본 것이다. 곧 살생·도둑질·邪淫과 거짓말·이간 붙이는 말·악담·유혹하며 속이는 말·탐욕·성냄·어리석은 소견 등의 十惡을 고쳐서 十善으로 바꾸고, 邪見·邪思惟·邪語·邪業·邪命·邪方便·邪念·邪定 등의 八邪를 八正道로 바꾸면 그곳이 곧 극락세계라고 본 것이다. 이는 《觀無量壽經》의 ‘여기에서 멀지 않다(去此不遠).’는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극락세계에 대한 묘사는 물질적 樂土觀과 함께 심오한 종교적 관념과도 결부되어 있다. 그것은 극락의 주재불인 阿彌陀佛이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사람을 구제한다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어타적인 면에서 중생제도를 사명으로 하는 대승불교의 菩薩道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미타불은 法藏菩薩이었을 때 세운 四十八願을 성취함으로써 부처가 되었고 극락세계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四十八願에 근거해서 볼 때, 극락의 왕생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서 염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염불이 無我三昧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극락은 현실의 사바세계와 공간적 거리를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고승들은 娑婆世界가 곧 極樂淨土요, 현실세계와 극락세계가 不二라고 주장하였으며, 현실 속에서 극락세계의 실현을 회구하였던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禪宗·華嚴宗·天台宗 등의 종파에서는 萬法唯心の 이치에 의해 자기 마음을 닦아 佛性を 깨닫는다는 취지 아래, 새로운 극락관인 自性彌陀唯心淨土說을 주창하였다. 이는 자기 마음 가운데 본래 갖추어져 있는 성품이 아미타불과 다르지 않지만, 미혹하면 범부가 되고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며, 아미타불이나 극락정토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고 본 것이다.

極樂淨土에 왕생하는 수행법 중 우리 나라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것은 《觀無量壽經》의 十六觀法과 《維摩經》의 설이다. 《維摩經》에서는 정토에 태어나는 길이 여덟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① 중생을 도와 주되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중생을 대신하여 모든 고생을 달게 받을 것, ② 모든 중생에게 대하여 평등하게 겸손할 것, ③ 모든 사람을 부처님과 같이 공경할 것, ④ 모든 경전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것, ⑤ 大乘法을 믿

을 것, ⑥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을 것, ⑦ 자신의 허물만 살피고 남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을 것. ⑧ 늘 온갖 공덕을 힘써 닦을 것 등이다. 그리고 정토의 종류로서 17가지를 들고 있다. 直心・深心・六婆羅蜜・四無量心・四攝法・十善法(=어는 하나로 함)의 어느 하나라도 완숙하게 성취하면 극락에 왕생한다는 정신적인 정토 왕생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이후로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정토신앙이 크게 성행하였다. 신라시대에는 교학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고려시대에는 자성미타유심정토의 측면에서 종파별로 크게 신행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승속을 막론하고 내세에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신앙이 유행하였다. 따라서, 사찰의 당우 중에도 極樂殿 또는 無量壽殿이 가장 중요한 법당으로 건립되었으며, 사찰 주위에도 安養橋를 두는 등 극락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었다.⁸⁾

淨土 불교에서 부처가 있는 깨끗한 국토로서 淸淨土・淸淨佛刹・淨刹・淨界・妙土・佛刹・佛國이라고도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부처의 세계를 말한다. 중생들의 세계는 번뇌와 더러움에 가득한 穢土인데 반하여, 부처의 세계는 깨끗하고 번뇌로부터 떠나 있기를 떠난 곳에 부처의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와 마음의 청정함이 곧 정토라는 견해가 있다. 阿彌陀佛의 極樂 세계는 대표적인 정토인데, 이를 妙樂・安樂・安養이라고도 한다. 法藏比丘가 四十八誓願을 세우고 수행하여 이룩한 이 극락세계는 이 세계로부터 西方으로 十萬億佛國土를 지난 곳에 실재하고 있다고 본다. 참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믿고 염불하면 죽고 난 뒤 그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곳은 아무런 번뇌나 괴로움・더러움이 없고 온갖 보배와 청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항상 부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극락에는 ‘依報淸淨十四功德’와 ‘正報淸淨四功德’이 있다. 전자는 최선의 환경에서 오는 감각적 최고 쾌락기요, 후자는 최선의 정신상태에서 오는 知的 최고쾌락이다. 그러나 一切分 變易을 떠난 槃樂이다. 그런데 극락에는 즐거움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슬픔 즉 ‘覺者’의 ‘非智’가 있다. ‘覺’을 성취한 극락인은 不 一切苦 衆生하고 大悲心을 성취코자 하는 고

8) 阿彌陀經, 無量壽經, 觀無量壽經, 維摩經, 佛典解說(李箕永, 한국불교연구원, 1978).

로 극락인은 衆生과 같이 살며 同苦同樂하는 悲智를 갖는다.

극락의 필연적 기계적 목적성은 衆生이 왕생극락하는 방법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는 他受用土로서의 극락의 目的性이다. 일단 왕생극락하여 성불하면 ‘覺者의 大自在力’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부터 더듬어 온 인과연쇄의 마지막 고리를 벗어나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총결산시켜 청산하여 버리고 만다. 거기에 남은 것은 覺者가 된 극락인의 衆生濟渡의 大悲心밖에 없다. 이리하여 극락인의 모든 行動은 다시 이 世界로 ‘廻向’되나니 이것이 극락의 마지막 門인 ‘第五 相門’이며 여기에 또한 自受用土로서의 극락의 對有意的 人格의 目的性이 있다.

극락은 이 모든 ‘業繫苦相’이 없어진 곳이다. 이 모든 因果系列에서의 비약적 離脫이 곧 왕생극락이다.

自力の 救援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적 善한 힘을 가진 者는 自己 곧 인간이고, 自己本有의 善한 大自在力을 발휘하는 者가 곧 ‘覺者’이다. ‘覺者’를 괴롭히고 울리는 악하고 약한 他者 즉 衆生과 世界史가 다할 때까지 ‘覺者’의 大自在力이 남김없이 발휘되어 오직 善한 自己만이 있게 될 때 그 곳이 바로 極樂이다.

2. 地 獄

생전에 惡業을 저지른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어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세계를 말한다. 글자의 뜻은 지하의 감옥을 의미하는데, 산스크리트의 나라카(NARAKA; 奈落), 또는 나라야(NIRAYA)가 어원이다. 인간이 죽으면 현재와는 다른 세계로 간다고 하는 관념은 많은 종교와 신화에 보편적으로 나온다. 보통 他界 또는 저승이라는 것이 死者가 사는 세계를 가리키며, 地獄은 타계의 하나로 죄를 지은 인간이 벌이나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⁹⁾

영어의 hell, 독일어의 Holle, 프랑스어의 enfer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시종교와 고대신화에서 죽은 사람이 사는 세계는 懲罰이 없는 세계였

9) 世界大百科事典 第25卷, 동서문화사. 1994. p.14945.

다. 사후의 세계는 善惡 윤리관의 分化和 함께 2개의 세계로 분화된다. 천국과 극락은 절실한 願望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地獄은 공포의 대상으로 현세의 생활을 지배한다. 현세의 인간은 불안과 고통과 煩惱에 찬 가짜 존재이고, 극락에 이르기 위한 종교적인 선행을 쌓고자 하며, 그렇지 않으면 地獄에 떨어진다고 믿었다. 이는 세계종교의 敎說이 민중에게 침투할 때 因果應報觀이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불교에는 생물이 輪廻하는 六道¹⁰⁾의 최하층에 地獄이 있다. 《俱舍論》에서는, 팔대지옥이라고 하여 等活(殺生の 죄)·黑繩(살생, 도둑질의 죄)·衆合(살생·도둑질·邪淫의 죄)·叫喚(살생 도둑질 사음 음주의 죄)·大叫喚(위의 4가지 죄에 더하여 妄語의 죄)·焦熱(위의 5가지 죄와 邪見의 죄)·大焦熱(위의 6가지 죄에 眞理를 어긴 죄)·無間 또는 阿鼻(부모를 죽이거나 부처를 손상시킨 죄 五逆罪¹¹⁾ (五無間業))가 있다. 각 지옥에는 다시 16가지의 지옥이 있으므로 대소 합하면 136가지의 지옥이 있고, 그 밖에 팔대지옥 옆에 八寒地獄이 있어서 중생은 嚴寒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고대인도의 베다에서는 지옥에서 사자를 심판하는 것은 사자의 왕 야마였다. 야마는 閻魔(閻羅)라 漢譯되어 불교와 함께 중국에 전해져서 완전히 중국적 존재가 되었다. 야마는 명제에 있는 10명의 왕 중의 하나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지옥의 관념은 원시불교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그와 대비되는 淨土의 관념은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이후에 생겼다. 淨土의 관념보다는 지옥의 관념이 역사적으로도 더 오래되었고 즐겨 이야기되었으며 그림의 재재로도 채택되었다. 이것을 地獄變이라고 하며, 세속에서는 속칭 地獄圖·地獄畫라고도 한다.

지옥을 다스리는 왕을 閻魔王이라 부르는데, 염마왕이 중국에 들어와서는 도교적 영향을 받아서 十王사상으로 전개되고 오히려 시왕 가운데 한 존재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預修十王生七經》이 엮여지면서 지장 보살과 시왕은 한몸이 되어 종래의 현세 이익적인 신앙에서 내세 구원적

10) 地獄道, 餓鬼道, 畜生道, 阿修羅道, 人間道, 天上道.

11) ① 塔寺를 파괴하고 經像을 불사르고, 3보의 재물을 훔침.

② 三乘法을 비방하고 聖敎를 경전하게 여김.

③ 스님네를 욕하고 부림. ④ 小乘의 五逆罪를 범함.

⑤ 因果의 도리를 믿지 않고, 惡口·邪淫 등의 10不善業을 짓는 것.

인 신앙으로 바뀌면서 그 역할도 바뀌게 된다. 경전에 따라 재일과 시왕 그리고 변화 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²⁾

《預修十王生七經》에 나타난 十王의 역할

十王名	재 일	變化神	地獄
秦廣大王	제1. 7일	不動明王	刀山 地獄
初江大王	제2. 7일	釋迦如來	火蕩 地獄
宋帝大王	제3. 7일	文殊菩薩	寒冰 地獄
五官大王	제4. 7일	普賢菩薩	劍樹 地獄
閻羅大王	제5. 7일	地藏菩薩	拔舌 地獄
變成大王	제6. 7일	彌勒菩薩	毒蛇 地獄
太山大王	제7. 7일	藥師如來	鉅骸 地獄
平等大王	제8. 100일	觀音菩薩	鐵床 地獄
都市大王	제9. 1주년	勢至菩薩	風塗 地獄
轉輪大王	제10. 3주년	阿彌陀如來	黑闇 地獄

한편 《預修十王生七經》에는 이렇게 7. 7일과 백일, 1주년, 3주년 모두 10회에 걸쳐 10왕들에게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육도 가운데 한곳에 다시 태어난다고만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런데 「回心曲」으로 널리 알려진 해근이 지은 「普勸念佛文」(1704년에 판각됨) 가운데 지옥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곳에 보이는 시왕명과 해당 지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³⁾

地獄의 樣相과 刑罰

十王順	地獄名	刑罰	業種
1	刀山 地獄	칼선다리 타기	깊은 물에 다리 놓기(월천공덕) 배고픈 사람 밥 주기(급식공덕)
2	火蕩 地獄	끓는 물에 담금	목마른 사람 물 주기(급수공덕) 벗은 사람 옷 주기(착복공덕)

12) 이기선 《지옥도》, 대원사, 1992. p. 61. 參照.

13) 上揭書, p. 66.

十王順	地獄名	刑 罰	業 種
3	寒氷 地獄	얼음속에 넣기	부모에게 효, 일가 방담화목, 동네 어른 존대
4	劍樹 地獄	칼로 몸 베기	함정에 빠진 사람 구출
5	拔舌 地獄	집게로 혀 빼기	어른말에 걸대담
6	毒蛇 地獄	독사로 몸 감기	역적 도모, 살인, 강도, 고문, 도적
7	鉅散 地獄	톱으로 뼈 쪼개기	상인이 되나 말을 속여서 남의 눈 속 이기
8	鐵床 地獄	쇠판에 올리기	남의 남편 우러러 바라보기 남의 가족 우러러 바라보기
9	風塗 地獄	바람길에 앉힌	혼인풍덕, 혼인식 못한 것도 유죄
10	黑闇 地獄	암흑 속에 두기	남녀 구별 몰라 자식 못 낳은 것 유죄

地獄의 재판관인 10명의 왕이 죄를 짓고 끌려 온 죄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을 가리켜 十王圖라 한다. 불교에서는 경전의 내용을 간추려 그림으로 펼쳐 보이는 것(圖說)을 經變相圖 또는 변상도라 일컫고 있으니, 《華嚴經》에 곁들여진 그림은 화엄경변상도라 이르고, 《法華經》에 딸린 그림은 법화경변상도라 이른다. 따라서 시왕도도 본디 《預修十王生七經》에 따린 변상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시왕도 가운데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은 돈황에서 발견된 10세기경의 것이라 한다. 두루마리로 된 경전에 그려졌기 때문에 《十王經圖卷》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이 十王圖의 형식을 보면 각 대왕이 좌우에 권속을 거느린 채 탁자를 앞에 두고 앉아서 죄인을 심판하는 모습과 스스로 저지른 죄의 대가로 무서운 형벌의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 한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 형식은 그 뒤에 조성된 수많은 시왕도에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十王圖 가운데 연대가 가장 빠른 것은 13세기경 해인사에서 목판으로 새겨진 ‘예수시왕생칠경변상도’인데 이것 또한 돈황에서 발견된 十王圖의 기본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서 오늘날 冥府殿에 모셔진 채색화의 화

면 구성에도 나타나고 있다. 곧 화면 구성을 보면 상·하단으로 나뉘어 상단에는 각 대왕들이 재판하는 모습, 하단에는 죄인이 벌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돈황에서 발견된 《시왕경도권》의 기본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경우 十王圖는 冥府殿 또는 十王殿 안벽에 봉안되어 있다. 다시 말해 나무를 깎거나 흙으로 빚은 十王像의 뒤쪽 벽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十王圖는 벽면에 직접 그려진 벽화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조선시대 불화가 대개 그렇듯 화폭에 그려서 벽에다 거는 방식 곧 탕화만 남아 있다.

Ⅲ. 作品에 나타난 佛教思想

「六甲十王願佛歌」는 彌陀寺 李璟協 스님이 口述한 것인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펴낸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65호인 和請¹⁴⁾이란 프런트 책자에 실려 있다. 모두 390句의 4·4調가 정연한데, 그 서두 부분은 다음과 같다.

- | | |
|-------------|-------------|
| 1 十方三世 부처님과 | 2 팔만사천 큰法寶와 |
| 3 菩薩聲聞 스님에게 | 4 至誠歸依 하옵나니 |
| 5 慈悲하신 願力으로 | 6 굽어살펴 주옵소서 |

娑婆世界の 四方과 四維 그리고 上·下에 계시는 부처님과 法寶와 보살성문 스님께 歸依하오니 慈悲하신 願力으로 보살펴 달라고 했다.

우주에는 欲界·色界·無色界가 있고 이를 다시 세분하면 지옥·아귀·축생·천상·인간·아수라 등 무수한 종류의 세계가 있다. 무수한 세계를 크게 묶어 욕계·색계·무색계로 나누며 이를三界라 한다.

※ 引用作品 앞의 숫자는 原歌辭의 句 번호임.

14) 1969년 12월 東國大學校 佛教大學에서 조사한 것인데, 주로 서울지방의 ‘和請’ 보유자를 탐방하여 녹음 채취한 것임.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욕망이 가장 왕성한 경지는 욕계라 하고, 욕망은 성하지 않지만 아직도 정신적으로 물질에 대한 애착과 속박 등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색계라 한다. 그리고 물질적인 욕망과 拘碍와 큰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자재한 정신세계를 무색계라고 한다.¹⁵⁾

願力은 誓願의 힘으로 또는 本願力·宿願力·大願業力이라고도 한다. 즉 부처님이 菩薩때의 세운 本願이 완성되어 그 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陸游의 詩에 “香火만 부지런히 피워야 쓸데 없이 願力만 어그러진다.”라고 하였고, 《智度論》에 “莊嚴한 佛界의 일은 너무나 커서 혼자 功德을 行해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願力이 필요하다.”¹⁶⁾라고 하였다.

- | | |
|--------------|--------------|
| 7 참된性品 등저업고 | 8 無明속에 뛰어들어 |
| 9 낳고죽는 물결따라 | 10 빛과소리 물들었네 |
| 11 심술궂고 욕심내어 | 12 온갖煩惱 쌓았으며 |
| 13 보고듣고 맛봄으로 | 14 限量없는 죄를지어 |
| 15 잘못된길 갈팡갈팡 | 16 生死苦海 헤매면서 |
| 17 나와남을 執着하고 | 18 그른길만 찾아다니 |
| 19 여러生涯 지은業障 | 20 크고작고 많은허물 |
| 21 부처님의 願力으로 | 22 一心懺悔 하옵나니 |
| 23 부처님이 이끄시고 | 24 보살님이 살피시와 |
| 25 苦痛바다 헤어나서 | 26 涅槃언덕 가사이다 |

衆生은 自己의 本性을 잃고 모든 煩惱의 근원이 되는 邪見·妄報으로 법의 진리에 어두워 生死苦海 헤매면서 十惡을 행하는 모든 罪를 一心懺悔하오니 부처님과 보살님의 願力으로 得道하여 일체의 苦痛과 煩惱를 끊고 不生不滅의 법성을 증험한 해탈의 경지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執着은 封執堅著의 뜻이다. 또는 홀(單)으로 執 또는 着이라 하며 計著이라고도 한다. 虛妄分別한 마음으로 인하여 我와 法 등의 封執堅著하는 것을 말한다.

15) 오형근, 《불교의 영혼과 윤회관》, 새터, 1995, p. 158.

16) 《智度論》第七.

개인의 생활이 자기가 지은 業力에 의하여 실현되고 공동으로 사는 세계도 그 지상에서 사는 업력이 모여 공동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모든 삼라만상은 업력을 벗어날 수 없다.

불교인의 良心은 지혜로 밝아야 하고, 불교인의 행동은 慈悲로 너그러워야 한다. 우리의 얼굴에는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가 있음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나와 함께 너를 보고, 자신의 소리와 함께 남들의 소리도 경청해야 된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인간 회복을 위해 불교가 제시하는 방법은 우선 인간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다. 우리는 늘 我에 대한 집착에 빠져 있다. 無常하고 無我한 것이 인간이다. 참나(眞我)는 無常하고 無我인 것이다. 무아인 참나를 체득하기 위해 《大安般守意經》에서는 다섯 가지 觀法修行을 권하고 있다.¹⁷⁾

業(karma)은 한마디로 義(manas)의 작용(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業에는 殺生·偷盜·邪淫·妄語·兩舌·惡口·綺語·貪·瞋·痴의 10惡業과 이것을 여윈 10善業이 설해지는데, 이 10業에서 처음의 셋(살생·투도·사음)은 몸(身)으로 짓고, 그 다음에 넷(망어·양설·악구·기어)은 말(口, vaca)로 짓고, 나머지 셋은 마음(意, manas)으로 짓는다.¹⁸⁾

業은 철저한 因果法則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報가 따른다. 業에 대한 果報는 피할 수 없고 個人的이다. 한 개인이 지은 業의 보를 남이 대신 받을 수 없다.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받을 뿐이다. 業에 의해서 三界五途를 輪廻하며, 인간으로 태어날 경우 개개인의 차별이 생기고 거처하는 환경도 다르게 된다. 인간의 목숨의 長短, 용모의 好惡, 권세의 有無, 貧富, 貴賤, 愚賢의 차이가 業報에 의한 것이다. 환경 역시 공동의 업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다.

고통을 낳는 인간의 行爲, 즉 業은 煩惱에 의해서 생해진다. 번뇌의 내용은 貪·瞋·痴이다. 이 중에서 痴는 無明이라고도 하며, 가장 근본적인 煩惱이다. 無明은 무지의 뜻으로서 모든 것이 緣起된 것이며 無常하고 無常하고 無我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¹⁹⁾

17) 不淨觀, 慈悲觀, 緣起觀, 六界差別觀, 數息觀.

18) 身故作三業 不善與苦果 受於苦報, 口有四業 意有三業 不善與苦果 受於苦報.

19) 이기영, 《불교개론》, 한국불교연구원, 1983, p. 30.

- | | |
|--------------|--------------|
| 27 이세상에 명과복은 | 28 길이길이 장생하고 |
| 29 옴은세상 佛法智慧 | 30 무럭무럭 자라나서 |
| 31 날적마다 좋은국토 | 32 좋은스승 만나오며 |
| 33 귀와눈이 聰明하고 | 34 말과뜻이 眞實하여 |
| 35 세상일에 물안들고 | 36 좋은行實 닦고닦아 |
| 37 서리같이 嚴한戒律 | 38 털끝인들 어거리까 |

娑婆世界の 衆生の 壽福은 장생하여 佛法 智慧 修煉하여 言默動靜이 분명하고 積善修德하여 三寶를 잘 지키라고 했다.

戒律의 戒는 防非止惡, 律은 法律의 뜻인데 五戒・十善戒 내지 二百五十戒 등 佛弟子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는 律法이다.

지혜를 증득한다면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열반을 노래하며, 영원히 생동하는 실상진여와 더불어 생활할 수 있다. 여기에서 成・住・壞・空의 진리가 서로 다르지 아니하며 우주 공간에서도 무한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참 性品은 본래부터 스스로 청정하고 고요하여 일체가 원만 구족하고 生滅이 없는 영원한 것이다. 이 ‘뚜렷이 밝은 한 물건’을 法身・自性・眞如・佛性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중생들은 이러한 ‘나의 참 성품’을 迷하고 地・水・火・風 四大가 모여서 된 몸뚱이를 ‘내 몸’이라고 하며 눈(眼)・귀(耳)・코(鼻)・혀(舌)・몸(身)・의식(意)의 여섯 가지 기관(六根)으로 여섯 가지 대상(六境) 즉 色(빛깔)・聲(소리)・香(냄새)・味(맛)・觸(촉감)・法(알음알이)를 받아들인 그림자 즉 불변심을 ‘내 마음’이라 고집한다. 그것은 마치 깊은 산이나 바다에서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동과 서 또는 남과 북이라 한 것과 같다. 이렇듯 전도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모든 是非・苦惱・苦痛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나’를 구성하고 있는 육체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인 五蘊이 空한 것이다. 五蘊이 공한 도리를 알 때 모든 苦惱는 사라진다.

- | | |
|--------------|--------------|
| 39 菩薩마음 모두내어 | 40 輪回苦를 벗어나서 |
| 41 三世如來 정광보살 | 42 聲聞緣覺 正觀하사 |
| 43 地藏菩薩 化主되고 | 44 정명모두 부처로다 |
| 45 崔參判이 定座하고 | 46 業鏡臺를 바라보며 |

47 미사관관 문체잡고

49 嚴肅하게 定座하사

51 業緣衆生 내보낼때

53 經典인들 없으리까

48 牛頭馬面 邏卒들이

50 前生에서 이생까지

52 生前빛은 없사오며

이 세상에 온 모든 衆生은 一生에 지은 業에 따라 來生이 결정되니 善業을 實行하여 四生六道의 苦海를 벗어나야 한다.

輪廻(samsara) 세상의 온갖 물질과 모든 세력은 어느 것이나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因果의 법칙에 따라 서로 連鎖關係를 지어 가면서 변하여 갈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業識도 육체가 흠어질 때에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중생이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므로 설새 없이 번민과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생전에 지은 業을 따라 地獄·餓鬼·畜生·修羅·天上 또 다시 人間으로 수레바퀴 돌듯 돌아다니게 된다. 이것을 輪廻라고 한다.

畜生은 전생에 惡을 범하면서도 잔혹 善心을 내어 남에게 보시도 하고 비교적 다른 축생에 비하여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축생들의 출생 형태는 태에 의지하는 胎生, 알에서 태어나는 卵生, 습기에 의지하여 태어나는 濕生, 依託할 곳이 없이 홀연히 생기는 化生 등이 있다. 태생은 중생의 사된 행동을 많이, 난생은 탐욕과 瞋恚心과 痴心이 많아서 국가를 파괴하거나 인간을 파괴한 과보가 있다. 습생은 악심과 사전을 갖고 타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등 죄업을 짓고 출생한 축생들의 과보를 말한다. 화생은 전생에 너무 살생을 많이 하고, 外道들이 사된 제법(邪濟法)으로 모든 하늘(諸天)에 공양을 올리며 복과 덕을 반업으로 지옥에 타락하여 있다가 다시 축생계에 화생으로 태어난 것을 말한다.

「六甲十王願佛歌」는 秦廣大王·初江大王·宋帝大王·五官大王·閻羅大王·變成大王·泰山大王·平等大王·都大王·轉輪大王 등 十王의 단락으로 나누어 노래하였다. 이 十王은 欲界의 6天和 4禪天의 임금으로서 地獄에 있어서 罪의 輕重을 정하는 十位의 王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날부터 49일까지는 7일마다, 그 뒤에는 百日·小祥·大祥에 차례로 各王에게 생전에 지은 善惡業의 심판을 받는다.

54 우리말은 大王님은	55 어느대왕 매였는지
56 第一前에 秦廣대왕	57 진광대왕 매인생은
58 庚午甲이 上甲인데	59 庚午申未 임신계유
60 甲戌乙亥 매였는데	61 定光如來 願佛이요
62 刀山地獄 찾으시라	63 四面八方 칼산인데
64 쥐는것도 칼날이요	65 밟는것도 칼날이라
66 온몸全身 다부서저	67 피가되어 개천되니
68 淒涼하고 寒心하다	69 이地獄에 드는이는
70 옛적에 사냥꾼이	71 다섯사슴 잡아다가
72 눈만빼어 먹은죄로	73 地獄苦를 갖춰받아
74 人間世의 사람되어	75 五百劫間 장님되어
76 모든苦를 받았으니	77 因果應報 분명하다
78 몸으로써 지은죄에	79 殺生罪를 짓지마소
80 거룩하신 부처님께	81 살생죄를 懺悔하고
82 一心으로 念佛모서	83 極樂으로 가옵시다

秦光大王은 定光如來 願佛²⁰⁾로서 庚午·辛未·壬申·癸酉·甲戌·乙亥生 담당으로 娑婆世界의 衆生들이 殺生罪를 지으면 刀山地獄 가니 積善하고, 惡業을 懺悔하여 極樂에 가라고 했다. 錠光如來는 燃燈佛이라고도 한다. 과거 久遠한 옛적에 出現하여 釋尊에게 미래에 반드시 成佛하리라는 授記를 주었다. 저승을 다스리는 왕은 모두 열분이신데 그 첫 번째가 진광대왕인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冥途라고 하는 저승길로 자꾸 가서 마침내 初7忌日되는 날 진광대왕 앞에 당도한다. 무릇 생전에 不孝 노릇을 했거나, 因果法則을 믿지 않았거나,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가 이곳의 염마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죽은 뒤 7일만에는 반드시 이 왕전에 이르게 되며, 진광대왕에 의해 생전에 지은 죄업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秦河의 나무까지는 아직도 멀기 때문에 이곳의 심판이 끝나면 곧 다음 왕전을 향해 떠난다는 것이다.

秦廣大王은 十王의 第一로서 冥途에서 죽은 이의 初七日의 일을 보는

20) 10종 불의 18相으로 成道란 化身佛은 인행 때의 서원을 성취한 부처 우리 나라 俗語로는 자기가 일생 동안 모시고 예경하는 佛像.

廳府官王의 이름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惡을 끊고 善을 닦게 하는 冥官이다. 刀山地獄은 지옥에 있다는 칼을 심어 놓은 산이다.

因果의 因은 能生이며 果는 所生이다. 因이 있으면 반드시 果가 있고 果가 있으면 반드시 因이 있다. 이것을 因果의 理라 한다. 佛教는 三世의 說을 通하여 善惡이 應報하는 뜻이 있다. 《觀無量壽經》에 “因果를 深信하여 大乘을 誹謗하지 않는다.” 하였고, 止觀五에 “果를 부르면 因이 되고 獲을 覓하면 果가 된다.” 하였으며, 《十在毘婆娑論十二》에 “因으로 知를 얻으니 得은 成就이며 果는 因에 따라 생기니 事成을 果라 한다.” 하였다.

《華嚴經 十地品》을 보면 “살생한 죄보는 지옥이나 아귀나 축생이 되거니와 人道에 나더라도 명이 짧은 과보와 병이 많은 과보를 받느니라.” 고 했다.

84 제이전에 初江大王	85 초강대왕 매인생은
86 戊子甲이 上甲이라	87 戊子己丑 경인신묘
88 壬辰癸巳 말으시고	89 藥師如來 원불이요
90 火湯地獄 찾으시라	91 地獄全體 가마인데
92 끊는물이 용솟음네	93 죄진사람 들어가면
94 삶아죽여 네어놓네	95 이지옥에 드는이는
96 이는과거 이세상에	97 도독질을 부디마소
98 남의財物 도적하여	99 非理行敢 하는것이
100 白晝大賤이 아닌가	101 옛날옛적 한老人이
102 딸자식이 艱難커늘	103 白米닷되 돌려내어
104 아들몰래 주었거늘	105 母子間에 같이죽어
106 큰말되고 새끼되어	107 그아들을 태우라니
108 모자간도 그렇거늘	109 남의것을 議論하리
110 거룩하신 부처님께	111 몸으로써 지은죄와
112 偷盜罪를 懺悔하고	113 一心으로 念佛모서
114 極樂으로 가옵시다	

初江大王은 藥師如來 願佛로서 戊子·己丑·庚寅·辛卯·壬辰·癸巳生담당으로 사바세계 중생들이 偷盜罪를 지으면 火湯地獄에 가게 되니 殺生·非理行政하지 말고 善政하여 極樂往生하라고 했다.

두 번째로 다다른 곳이 初江大王전인데, 죽은 뒤 27일 되는 날에는 반드시 이 왕전에 당도한다. 이 왕전의 본당은 奈河라고 하는 큰 강 기슭에 있고 초강대왕은 죽은 사람의 내하 도강을 전적으로 감시한다고 한다. 죽은 사람이 이 왕전본당까지 갈려면 세 갈래 길 중에 한 길을 따라 내하를 건너가야만 한다. 이 강의 상류는 얕은 여울물이 굽이져 있고, 중류에는 다리가 놓여져 있으며, 하류는 수심이 깊을 뿐 아니라 물살이 세고 험난하다. 죽은 사람의 罪業이 무거우냐에 따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 강을 건너게 된다. 본당에 닿으면 생전의 罪業을 심판받으며, 가벼우면 좋은 길로, 무거우면 나쁜 길로 끌려 간다.

初江大王은 十王 가운데 第二인데, 大海의 밑 正南 沃焦石 아래 大地獄에 산다. 이 重地獄에 縱과 廣이 五百由旬이며 따로 十六 小地獄이 있어 惡人이 어떤 罪를 犯했는지 먼저 大獄에 끌려 들어가서 따로 어떤 小獄에 가 苦痛을 받고 滿期가 되면 第三殿에 轉解하여 刑을 받고 獄을 벗어난다 한다. 火湯地獄은 《千手經》에 “내가 만약 火湯을 향하면 화탕이 스스로 소멸한다.” 하였는데, 湯地獄과 같다.

藥師如來佛은 衆生の 病을 고치며 苦惱를 건지는 佛이다. 藥師瑠璃光如來・大醫王佛・醫王喜逝라고도 한다. 東方淨瑠璃國이라는 佛國土를 건설하여 그 世界의 교주가 되어 一切 衆生の 질병을 고치며 無明의 고질도 치료하였다.

115 제삼전에 宋帝大王
117 壬午甲이 上甲인데
119 丙戌丁亥 말으시고
121 寒氷地獄 찾으신데
123 이는과거 이세상에
125 五臟六腑 빼어다가
127 世上行樂 다받으며
129 兩主之間 헤살놓고
131 좋아하는 이사람은
133 仰告十方 부처님께
135 邪淫罪를 懺悔하고
137 極樂으로 가옵시다

116 송제대왕 매인생은
118 壬午癸未 갑신을유
120 賢劫千佛 원불이요
122 어리죽고 토막나네
124 남의살을 좋아할때
126 구어먹고 삶아먹어
128 거짓말로 일삼을때
130 온갖사람 못사는것
132 이地獄에 들어가네
134 몸으로써 지은죄에
136 一心으로 念佛모셔

宋帝大王은 賢劫千佛 원불로서 壬午·癸未·甲申·乙酉·丙戌·丁亥生 담당으로 사바세계 중생들이 邪淫罪를 행하면 寒氷地獄으로 가게 되니 肉食을 금하여 西方淨土에 가라고 했다.

세 번째로 가 닿는 데가 송제왕전인데, 죽은 지 37일 되는 기일에는 반드시 송제대왕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 왕전의 본당 옆으로는 두 줄기의 강물이 흐르고 있으며 그 강뚝 높은 곳에 본당의 정문이 있다고 한다.

죽은 사람은 이 왕전에 와서 역시 생전에 지은 罪業을 또다시 심판받는다. 죽은 사람이 이곳에 도착하면 사납고 극악스러운 고양이 떼가 몰려들고 또 큰 뱀들이 우굴우굴 나타난다. 그리하여 그의 罪業에 따라 가지 가지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죄가 큰 사람은 여기서 비로소 죽어서 가는 명도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먼가를 절실히 깨닫는다.

宋帝大王은 十王의 第三으로 大海의 밑의 東南 沃焦石의 밑 黑繩大地獄을 맡고 있다. 이는 重地獄으로 길이 넓이가 五百由旬이 된다. 별도로 十六小地獄을 두어서 惡人이 한 犯罪의 輕重을 查對하여 大地獄에 推入한다. 별도로 몇 개의 小獄의 受苦함에 응하여 채운 뒤에 第四殿에 轉解하여 加刑하고 收獄한다고 한다.

과거·현재·미래의 三住劫에 각각 一千佛이 출세한다. 賢劫千佛이란 佛祖統紀三十에 모든 經論을 勸考하여 그 기록에 의해 住劫에 二十增減이 있는데, 그 전의 八增減 中에는 佛의 出世가 없고, 第九減劫에 비로소 佛이 出世가 없고, 第九減劫에 비로소 佛이 出世하니 拘留孫佛이라 하며 千佛中의 一佛이다. 다음이 拘那含牟尼佛이며, 다음이 迦葉佛이요, 다음이 卽今の 釋迦牟尼佛이다. 이로부터 第十增減의 減劫에 가면 彌勒이 出世하고, 다음 第十增減의 減劫中에 師子佛 등 九百九十四佛이 있고, 다음 第二增減의 增劫에 數至佛이 出世하면 合計가 一千佛이 된다 한다.

寒氷地獄은 等活(想)大地獄의 19소지옥 중 16번째 마지막 지옥으로 넓이가 5백 유순이며 모든 죄인에게 추위로 형벌을 주는 지옥이다. 劍樹地獄을 탈출하여 온 죄인이 이 지옥에 도착하자 즉시 대한풍이 불어와 온몸이 뽕뽕 얼면 자동 파열되듯 이 罪人은 한 조각 두 조각씩 파열하고 탈락하여 버린다. 이러한 추위를 갑자기 만나므로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고통은 더욱 심하다. 이와 같이 찰나찰나 숨 돌릴 사이 없이 계속되어 하루에도 수없이 죽었다 살았다 하며 고통을 받게 된다.

《無量壽經》에 “사람은 愛欲의 세상에 홀로 태어나고, 홀로 온다. 본래 善과 惡이란 자기 行業의 자연스런 결과이며, 모든 행위에 맞춰서 결과를 달리하여 나타난다. 善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惡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한 인과의 도리이며, 미래의 苦와 樂의 경계도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여 정해진다.”고 하였다. 사람이 즐겨 범하는 것은 음욕보다 지나갈 것이 없으니, 여러 겁의 난관은 여기에 얽매는 것이다. 《佛頂經》에 “만일 음욕과 살생 따위를 끊지 않고 三界를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하였다. 괴로움의 원인이 다름아닌 ‘慾望’과 ‘渴愛’, 그리고 진실을 알지 못하는 ‘無明’임을 깨닫고, 괴로움의 근원인 욕망과 같은 無明을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138 제사전에 五官大王	139 오관대왕 매인생은
140 甲子甲子 上甲인테	141 甲子乙丑 병인정묘
142 戊辰己巳 찾아신테	143 阿彌陀佛 원불이요
144 김수지옥 맡으셨네	145 지옥전체 칼이로다
146 죄진사람 들어가면	147 찢어지고 배어져서
148 피가흘러 개천죄니	149 불쌍하고 가련하다
150 이는과거 이세상에	151 아무리 욕심나도
152 邪淫일랑 하지마소	153 나의쳐로 족하거늘
154 남의쳐가 무엇일고	155 他人과 邪淫하라
156 本男便께 죄졌으니	157 그때가 어찌될까
158 입으로써 지은죄에	159 綺語罪를 짓지마소
160 거룩하신 부처님께	161 기어죄를 懺悔하고
162 一心으로 염불모셔	163 極樂世界 가옵시라

五官大王은 阿彌陀佛 願佛로서 甲子·乙丑·丙寅·丁卯·戊辰·己巳生 담당으로 綺語罪를 지은 중생이 김수지옥으로 가게 되니 입으로써 지은 죄를 懺悔하고 極樂으로 가라고 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찾아가는 곳이 오관대왕전인데, 죽은 지 47일 되는 기일에 오관대왕 앞에 가 서야 하는 것이다. 이 왕전 본당은 세 줄기 강

위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는 사람이 생전에 거짓말한 죄만을 전적으로 다스리는 본당 좌우로 각각 한간짜리 집이 있는데 왼쪽 집을 秤量舍라 부르고, 바른쪽 집을 勸錄이라 부른다.

五官大王은 伍官王이라 하는데, 十王經에서 설한 十王의 第四이다. 저승에서 五刑을 주재하는 王의 이름으로 大海底의 正東쪽 沃焦石下에 合大地獄을 맡고 있다. 이 重地獄의 縱黃은 五百由旬이며 十六小地獄을 設하였다. 죄인의 事犯의 大小를 查核하여 合大地獄에 推入하여 苦痛을 받게 하고 期限이 차면 풀어서 第五殿에 보내어 察核케 한다 한다. 《十王經》에 “五官의 業稱은 空을 向하여 달렸다. 좌우의 雙童이 어찌 情과 所願을 따를 수 있는가. 저울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모두 지난 날의 因緣에 달려 있다.” 하였다.

평량사 안에는 신비한 저울과 요술경대가 있어서 죽은 사람의 말이 진실인가 여부를 가려내고 또 지은 죄의 무게를 단다. 그리고 감록에는 상세한 기록문서가 있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밝혀내게 된다.

阿彌多庾·阿彌多庾斯 혹은 阿彌多婆·阿彌譚皤라 하는데, 이 중에서 庾斯는 壽의 뜻이요 婆는 光明의 뜻이다. 阿彌陀經에 “그 佛은 어찌하여 阿彌陀라 하는가” 舍利弗 “그 佛의 光明은 無量하여 十方을 照하여 障礙이 없으므로 아미타라 한다. 또한 그 佛의 壽命과 그 人民의 수명은 無量無邊한 阿僧祇劫이다. 그러므로 아미타라 한다 하였고, 이에 의하면 그 佛의 아미타 또는 무량이라 함은 그 佛의 光明이 無量함과 그의 國人の 壽命이 無量無邊 阿僧祇劫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光明 無量壽明無量은 그 佛을 阿彌陀라 부르는 명백한 이유가 된다 할 수 있다. 阿彌陀佛은 지금부터 十劫 이전에 成道하여 현재 西方極樂世界에 임하여 大衆을 위하여 說法한다고 알려져 있다.

綺語는 十惡의 하나로 공교롭게 꾸미어 겉과 속이 다른 말을 말한다. 劍樹地獄은 等活(想)大地獄의 16소지옥 중 15번째 지옥으로 넓이가 5백 유순이며 지옥 안에는 칼날로 된 수목이 가득 차 있으며 죄인이 이곳에 들어오면 자연히 수목이 내려와서 공격하는 지옥이다. 죄인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대폭풍이 일어나 칼날이 수없이 달린 나무들(劍樹)을 흔들게 된다. 이 때 검수에 달린 칼날잎이 죄인의 몸 위에 가을에 단풍잎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진다.

이 때 죄인의 몸에 칼이 닿으면 살점이 떨어지고 팔다리가 절단되며 머리와 얼굴과 몸 전체의 뼈까지도 하나도 상처가 없는 곳이 없다. 또 다죽어 누워 있는 죄인에게 철전조라는 무쇠로 된 새가 날아와서 머리 위에서부터 쪼아 먹는다. 이러한 고통을 가하여도 俗世의 罪惡 때문에 곧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또 이와 같은 刑罰을 수없이 받는다.

164 제오전에 閻羅大王

166 庚子甲이 上甲인데

168 甲辰乙巳 찾으신데

170 拔舌地獄 찾으시라

172 혀를 빼어 발을갈때

174 무섭기도 짝이없다

176 兩舌로써 싸움붙여

178 좋은情을 씹붙이니

180 불쌍하구 가련하다

182 妄語罪를 짓지말고

184 망어죄를 참회하고

186 극락세계 가옵시다

165 염라대왕 매인생은

167 庚子辛丑 임인계묘

169 地藏菩薩 원불이요

171 平原廣野 은뜰을

173 피가흘러 개천되니

175 이는과거 이세상에

177 離間질로 일을삼아

179 좋은정이 怨讐되니

181 입으로써 지은죄에

183 거룩하신 부처님께

185 일심으로 염불모셔

閻羅大王은 地藏菩薩 願佛로서 庚子·辛丑·壬寅·癸卯·甲辰·乙巳生 담당으로 妄語罪를 지은 중생이 拔舌地獄으로 가게 되니 말을 조심하라고 했다. 죽은 지 꼭 57일 되는 날 이 왕전에 당도하는데 이 왕은 同生 神이라 부르는 두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 왼쪽 동생신은 중생의 악행만을 기록하는데 생김새가 나찰처럼 험상궂고, 바른쪽 동생신은 선행만을 기록하는데 모습이 인자하다. 본당에는 두 개의 궁전이 있으며 그 하나를 光明王院, 다른 하나를 善名稱院이라 부른다.

광명왕원에는 광명왕경이라는 커다란 거울이 걸려 있다. 이 거울은 삼세에 걸친 모든 내막을 선명하게 비춰 준다. 또한 팔방에도 業鏡이라는 경대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그 앞에서 머리를 잡고 바른 쪽으로 돌면 생전에 행한 선악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때 염라대왕은 그 거울을 가리키며 세상 사람들은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閻羅大王은 閻羅國의 임금으로 십팔장관과 팔만옥졸을 거느리고, 죽어

서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의 생전의 선악을 다스려 상벌을 준다 한다. 그 상은 보통의 불상과 비슷하고 왼 손에 사람의 머리를 붙인 旗를 가지고 물소에 탄 모양이었으니 근래에는 중국 복장에 분노의 相을 하고 있다. 閻家老子·閻羅老子·閻羅大王·閻魔羅·閻魔王·閻羅는 모두 同一한 것이다.

智藏菩薩은 持地 妙幢 無邊心이라고도 하는데, 지혜가 광대하여 일체 만유를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장이라고 한다. 오교장상에 “일체의 제법이 모두 毘盧遮那佛의 지장의 광대한 바다속으로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였고, 宗鏡錄十八에 “일체 중생이 자기의 심처내에 팔관이 있어서 화합하여 연꽃이 되었는데 이 연꽃 속에 정편지의 바닷가 있어서 역시 연화장 장엄 세계해라고 한다.” 하였다.

拔舌地獄은 입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떨어지는 地獄인데, 집게로써 그 혀를 뽑아버린다고 한다.

食名愛利는 修道上の 第一魔障이다. 修道人이 夢幻空華인 名浮利를 貪著하여 未得謂得하고 未證言證하는 大妄語罪를 범하면, 자기를 파멸하고 佛種을 斷絶하여 佛法上の 大惡魔가 되나니 大妄語는 참으로 可惡한 것이다.²¹⁾

187 제육전에 變成大王
189 丙子甲이 上甲인데
191 庚辰辛巳 매었는데
193 毒蛇地獄 찾으리라
195 죄진사람 들어가면
197 이리감고 저리감어
199 팔과다리 잘라먹네
201 惡談으로 일삼으며
203 남에악담 하는것이
205 하늘로 뱀은침이
207 입으로써 지은죄에
209 거룩하신 부처님께
211 일심으로 염불모셔

188 변성대왕 매인생은
190 丙子丁丑 무인기묘
192 大世智菩薩 원불이요
194 平原廣野 넓은뜰에
196 독한뱀이 달려들어
198 눈도빼고 귀도먹어
200 이는과거 이세상에
202 모든것이 무섭구나
204 자기한테 돌아오네
206 내얼굴에 아니질까
208 惡談罪가 무섭구나
210 악담죄를 참회하고
212 아미타불 親見하세

21) 退翁 性澈, 《禪門正路》, 佛光出版社, 1983, p. 243.

變成大王은 大世智菩薩 顯佛로서 丙子·丁丑·戊寅·己卯·庚辰·辛巳生 담당으로 惡談罪를 지으면 毒蛇地獄으로 떨어지게 되니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죽은지 67일 되는 날에는 변성대왕전에 다다른데, 앞서의 염라대왕전을 나와 이 변성대왕전까지 오자면 중도에 반드시 鐵丸所라는 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전에 惡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철환소를 지날 때 커다란 돌로 사정없이 얻어 맞으며, 갇가지 고통을 당한 끝에 가까스로 변성대왕전에 닿게 되는 것이다. 이 왕전에서도 죽은 사람이 생전에 지은 罪業을 심판하는데, 여기서는 앞의 두 왕전에서 저울과 거울로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엄한 벌을 가한다.

變成大王은 地獄十王의 하나로, 大海底의 正北 沃石下의 大叫喚 大地獄을 맡은 者이다. 이 地獄은 廣大함이 五百由旬이나 된다. 四圍에서 달리 十六個의 小地獄을 設하여 第五殿에서 解來鬼의 犯罪를 査核하고 다시 餘罪가 있으면 大地獄에 分發하여 受苦케 한다. 受苦의 其間이 滿了되며 第七殿으로 轉解한다 한다.

大勢至는 大勢至菩薩의 약칭으로 阿彌陀三尊의 한분인데, 또는 得大勢·大勢·勢至라 한다. 阿彌陀佛의 右脇에 모신 補處로 智慧門을 맡고 있다. 이 보살은 지혜의 광명으로 일도중생을 널리 비추어 三途苦를 여의고 무상의 힘을 얻게 하므로 大勢至라 한다.

위에서 몸의 四大를 四種의 毒蛇와 四大增損이 人身을 害함이 毒蛇와 같다고 비유했는데, 황금을 독사에 비유하기도 한다.

- | | |
|---------------|----------------|
| 213 제철전에 泰山大王 | 214 태산대왕 매인생은 |
| 215 甲午甲이 上甲인데 | 216 甲午乙未 병신정유 |
| 217 戊戌己亥 찾으신데 | 218 觀世音菩薩 염불이요 |
| 219 좌좌지옥 찾으시라 | 220 죄진사람 화에넣고 |
| 221 큰공이로 내리썰네 | 222 살과뼈가 부서져서 |
| 223 피가흘러 내가되고 | 224 그살뒹어 산이되니 |
| 225 무섭기도 한량없다 | 226 이는과거 이세상에 |
| 227 입으로써 지은죄에 | 228 兩舌로써 싸움붙여 |
| 229 이지옥에 들어가네 | 230 거룩하신 부처님께 |

231 兩舌罪를 참회하고

232 一心으로 염불모셔

233 極樂世界 가옵시다

泰山大王은 觀世音菩薩 願佛로서 甲午·乙未·丙申·丁酉·戊戌·己亥 生 담당으로 兩舌罪를 지으면 죄학지옥으로 가게 되니 항상 眞實한 말만 하라고 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찾아가는 곳이 태산대왕전인데 죽은 지 77일 되는 날 반드시 이 왕전에 당도한다. 죽은 사람이 태산대왕전에 당자면 또한 도중에서 반드시 閻鐵所라는 곳을 통과해야 한다. 이곳은 매우 험악하며 사방을 분간못 할 지경으로 캄캄하고 길도 좁다. 양쪽 벽에는 칼날 같은 쇠꼬챙이가 무수히 돋아나 있으므로 죽은 사람이 이곳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지독한 고초를 겪는다. 왕전 앞에는 여섯 개의 아치가 있다. 地獄界·餓鬼界·畜生界·修羅界·人界·天界의 六道輪廻를 분류하는 문인 것이다. 태산왕에 의해 앞으로 태어날 후생이 결정되면 죽은 사람은 각각 그중 한 개의 문을 돌아서 다음 왕전으로 간다.

泰山大王은 十王의 하나로 泰山王이라고도 한다. 本地인 본래의 범신은 藥師如來로서 王信을 冥道에 나타내어 罪人이 태어날 곳을 정해 준다 한다.

觀音菩薩은 觀世音菩薩의 약칭으로 大慈大悲를 근본서원으로 하는 菩薩의 이름이다. 중생이 苦難 중에 열심히 그 이름을 외면 곧 구제를 받는다고 한다. 阿彌陀佛의 왼편에서 부처님의 교화를 돕고 그 형상에 따라 千手觀音·十面觀音 등 三十二觀音으로 일컫는다.

兩舌은 十惡의 하나로 언어를 反覆하여 시비를 掉弄함을 말한다. 《易林》에 이르기를 一簧兩舌과 妄言의 謔訣이라 함을 불교에서도 兩說·惡口·妄言·綺語가 구업이 된다 한다. 신석에는 離間語. 대승의장철에 “彼와 此를 말로 승각시키는 것을 兩이라 하며 兩明의 말이 舌에 의하므로 兩舌이라 한다.” 하였다.

234 제팔전에 平等大王

235 평등대왕 매인생은

236 丙午甲이 上甲인데

237 丙午丁未 무신기유

238 庚戌辛亥 매였는데

239 盧遮那佛 원불이요

240	거해지옥 찾으시라	241	이는과거 이세상에
242	입으로써 지은죄에	243	속으로는 칼을품고
244	걸음으로는 좋아함에	245	모든일을 그릇쳐서
246	백사만사 毀謗치네	247	거룩하신 부처님께
248	마음으로 지은죄에	249	貪心罪를 懺悔하고
250	至誠으로 염불모셔	251	極樂世界 가옵시다

平等大王은 盧遮那佛 願佛로서 丙午・丁未・戊申・己酉・庚戌・辛亥生
담당으로 貪心罪를 지으면 거해 지옥으로 가게 되니 五欲을 벗어나야 한
다고 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로 찾아가는 곳이 평등대왕전인데, 이 왕은 죽은 사
람의 백일기를 다스린다고 알려져 있을 뿐, 사후 며칠째에 가 닿든 그것
은 일정치 않다. 아무튼 이 왕이 저승세계의 심판관으로서의 마지막 왕
이라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생전에 지은 죄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확정
되면 다음 열번째 전륜대왕전으로 보내어져 새로운 생을 받게 되는 것이
다. 이 왕의 외관은 성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慈悲心에 가득차다고
한다. 그리하여 죽은 사람에게 형벌만을 주는 게 아니라 교훈의 말도 들
려준다고 한다.

平等大王은 閻魔王의 別稱으로 공평하게 죄복의 업을 맡는다는 뜻이
다. 慧琳音義五에 “梵語 爛魔는 번역하면 평등왕이다. 이것은 생사와 죄
복의 업을 맡는 것이다.” 하였고, 演密鈔에 “炎魔王은 번역하여 평등왕이
다.” 하였으며, 五會法事讚本에 “평등왕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였고,
佛祖統紀三十三에 “華嚴感應傳에 郭神亮이 사자에게 평등왕의 곳에 끌려
갔으나 악인옥료지사구갈를 통하여 돌아 올 수 있었다.” 하였다. 이같은
설에 의하면 閻魔와 平等은 하나다. 십왕의 설에 의하면 염마왕의 밖에
또한 평등왕이 있다 한다. 劫初에 처음으로 국민의 주인을 세웠는데 평
등왕이라 하였다. 이 사람은 剎帝利種의 大祖이다. 佛祖統紀三十에 “議論
하여 한 평등왕을 세워 선한 이를 상주고 악한 이를 벌하였다.” 하였다.

盧舍那佛은 비로사나불의 약칭 또는 盧遮那佛, 華嚴宗의 本尊佛, 蓮華
藏世界の 教主, 解境十佛과 行境十佛을 갖춘 佛身이다. 원래는 태양이란
뜻인데, 佛智의 광대무변한 것을 상징으로 하는 華嚴敎의 本尊, 無量劫海

에 功德을 닦아 正覺을 얻는 蓮華藏世界의 教主로서 千葉의 蓮華에 앉아, 右手는 施無畏印, 左手는 與願印으로 한다. 華嚴經·梵網經에서 설하고, 法相宗에서는 盧舍那·釋迦佛을 수용·변화 二身으로 하고 毘盧舍那佛을 自性身으로 하여 구별하며, 天台宗에서는 毘盧舍那佛·盧舍那佛·釋迦佛을 法身·報身·應身の 三神으로 配하여 究竟의 妙境에 顯現하는 것을 毘盧舍那佛로 한다.²²⁾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다. 五欲²³⁾을 쟁취하면 행복하다 할 것이다. 인간이 바라는 오욕은 無常하여 오래도록 같이 존립할 수 없는 것이 衆生의 고뇌이다.

《榮根譚》을 보면, “욕심을 따르기도 고통이요, 욕심을 버리기도 고통이다.”라고 하였다. 욕심에 쫓겨 묶여 사로잡히는 일도 고통이며, 그렇다고 욕심을 끊어버린다면 안락해지느냐 하면, 그것 역시 고통이다.

《遺教經》에 “욕심이 많은 자는 이득을 추구할 것도 많기 때문에 苦惱도 역시 많다. 욕심이 적은 자는 추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할지라도 부자다.”라 하겠다. 食欲 바다의 거센 파도에서 지혜의 돛대가 빨리 잠겨 버리는 것을 길이 애달퍼 하노라. 五欲의 바다는 깊은 데 좋은 인도자 잃어버림을 탄식한다.

252 제구전에 都市大王

254 壬子甲이 上甲인테

256 丙辰丁巳 말으시고

258 鐵床地獄 찾으시라

260 죄진사람 누여놓고

262 피가뛰어 산이되어

264 이는과거 이세상에

266 이에허물 無數하여

268 술알허물 없을진데

270 그옛날에 한사람이

253 도시대왕 매인생은

255 壬子癸丑 갑인을보

257 藥王菩薩 원불이요

259 불과같은 鐵床에다

261 큰못으로 배를치니

263 산과나무 매달리네

265 술과알을 먹지마소

267 온갖죄를 다짓나니

269 聖賢들이 없을소나

271 술과알을 가르치고

22) 大日經

23) 財物, 色事, 飲食, 名譽, 睡眠.

272 五百生에 손이없고	273 하물며 또먹을쏘나
274 一起嗔心 수사좌라	275 술과알을 먹지마소
276 거룩하신 부처님께	277 마음으로 지은죄에
278 嗔心罪를 참회하고	279 깨끗한 마음으로
280 일심으로 염불모셔	281 極樂世界 가옵시다

都市大王은 藥王菩薩 願佛로서 壬子·癸丑·甲寅·乙卯·丙辰·丁巳生 담당으로 嗔心罪를 지으면 鐵床地獄으로 가게 되니 三毒을 짓지 말라고 했다. 죽은지 1주년이 되는 기일에 가 닿는 곳이 도시대왕전인데, 왕전 앞에는 불계가 하나 놓여 있다. 죽은 사람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 그가 만약 重罪를 지은 사람이면 불계 뚜껑을 열자 마자 불꽃이 솟아 나와 온 몸을 불사른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죽은 지 1주년 되는 날 가족이 《法華經》을 옮겨 쓴다든가 阿彌陀佛의 불상을 만든다든가 혹은 八齋戒를 받으면 福力이 특별한 힘을 발휘하여 죽은 사람의 고통을 구해 준다는 것이다. 1주기날 경이나 부처를 만들도록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都市大王은 冥途에 있으면서 亡人의 一周忌를 맡은 宮王의 명칭인데 또는 都帝王, 都吊王이라 하는데 十王의 하나이다. 本地는 阿闍如來로서 亡人에게 法華經과 阿彌陀佛造立의 功德을 說하는 冥官이다.

藥王菩薩은 觀藥王藥上二菩薩經에 過去 久遠劫에 佛을 琉璃光照如來라 하고 劫名은 正安穩이며 國名은 懸勝幢이다. 그 佛이 涅槃한 뒤에 像法中에 干比丘가 있어 發心修行하고 大衆中에 日藏이란 比丘가 있어 聰明多智하였다. 諸衆을 위하여 大乘의 平等大慈를 說하였고, 衆中에 星宿光이란 長者가 大乘을 듣고 마음에 歡喜가 생겨 訶梨勒果와 모든 雜藥을 가지고 日藏比丘와 諸衆을 供養하고 因해 大菩提心を 發하였다. 星宿光에게 아우가 있는데 또한兄을 따라 모든 良藥을 가지고 日藏과 諸衆을 供養하고 大誓願을 發하니 이 때의 大衆이 讚嘆하여 兄을 藥王이라 부르고 아우를 藥上이라 불렀다. 지금의 藥王과 藥上의 二菩薩이다. 佛이 彌勒에게 말하기를 “이 藥王菩薩이 오래동안 梵行을 닦아 모든 願이 이미 차서 未來世에 成佛하여 淨眼如來라 부를 것이며 藥上菩薩 또한 藥王을 따라 成佛하여 淨藏如來라 할 것이다.” 하였다.²⁴⁾

24) 法華嘉祥疏二에 [藥王者 過去世以藥救病 因以爲名.]

《法句經》에 “노여움을 참고 거만을 버려라. 세속적인 속박을 넘어서 名色에 집착하지 말아라. 사람의 노여워하지 않음으로써 노여움을 극복하고 善行에 의하여 惡行을 배품으로써 인색함을 진실로써 거짓을 극복해야 한다.”²⁵⁾ 고 했다.

《涅槃經》에 “술과 고기를 먹지 않음이 술과 고기를 布施함ियो, 꽃과 향을 사용하지 않음이 꽃과 향을 보시함이니, 이와 같이 보시하는 사람은 한 푼의 돈을 소비하지 않고도 큰 보시를 행하는 사람이라 한다.” 하였다.

282 第十王道 전륜대왕

284 戊午甲이 上甲인데

286 壬戌癸亥 말으시고

288 黑暗地獄 말으셨네

290 담높기가 萬丈인데

292 서로서로 부딪쳐서

294 서로서로 밟혀죽네

296 서로물고 당길적에

298 山川草木 쓸쓸뉘다

300 十惡業을 지은죄에

302 치심으로 모은재물

304 백년탐물 一朝盡夜

306 그財物에 못떠나니

308 그재물이 分離되어

310 痴心일랑 두지말소

312 痴心罪를 참회하고

314 극락으로 가옵시다

283 전륜대왕 매인생은

285 戊午己未 경신신유

287 釋迦如來 원불이요

289 世上事가 어리석다

291 地獄속이 鐵 이라

293 어찌된줄 모르고서

295 그중에도 猛獸들이

297 찢어가고 물고가니

299 이는과거 이세상에

301 痴心으로 막을쏘나

303 삼일修心 千財寶요

305 못다먹고 죽게되면

307 드도아니 무서운가

309 五臟六腑 모두타네

311 마음으로 지은죄에

313 一心으로 염불모서

轉輪大王은 釋迦如來 願佛로서 戊午·己未·庚申·辛酉·壬戌·癸亥生 담당으로 痴心罪를 지으면 黑暗地獄으로 가게 되니 十惡을 짓지 말라고 했다.

저승의 열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가 닿는 데가 전륜대왕전인데, 전륜대

25) 《法句經》, 念惡章.

왕은 눈이 열 개에 어깨가 넷이나 되는 옥줄을 거느리고 중생의 어리석음과 煩惱를 다스린다. 이 옥줄은 사람이 행한 善惡의 덕업을 손바닥 보듯이 환히 알고 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罪業의 輕重을 옥줄에 검사한다. 이 왕전에는 죽은 지 3주년 되는 기일에 닿는다. 여기서 생전에 지은 죄업을 판정 받음과 동시에 앞으로 무엇으로 태어날까에 대한 판정도 받는다. 福德이 크면 人界나 天界로 가게 되고, 罪業이 크면 畜生界나 餓鬼界로 가게 된다.

轉輪大王은 斫迦羅伐辣底曷羅 또는 斫迦越羅라 번역하며 轉輪聖王·轉輪聖帝·轉輪王·輪王이라고도 한다. 이 왕은 몸에 三十二相을 갖추고 즉위할 때에 하늘로부터 전보를 감득하고 그 전보를 굴려 사망을 降伏하였으므로 轉輪王이라 하고, 또 공중을 날아다니므로 飛行皇帝라 한다. 增劫에는 사람의 수명이 二萬歲 이상이 되면 세상에 출현하고, 減劫에는 사람의 수명이 한량 없는 나이로부터 八萬歲에 이를 때에 세상에 출현한다고 한다. 그 輪寶는 金·銀·銅·鐵의 四種이 있으면, 그 次第로 四·三·二·一의 大州를 거느리는데, 즉 金輪王은 四州를 다스리고 銀輪王은 東·西·南의 三州를 다스리고, 動輪王은 東·南의 二州를 鐵輪은 南閼浮提의 一州를 다스린다.’ 《俱舍論》十二에 “이 州에 사람의 수명이 無量歲로부터 八萬歲에 이르면 轉輪王이 태어나며, 八萬으로 減할 때에는 有情이 富樂하고 壽量이 損減하면 많은 악이 점점 성하여 대인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輪王이 없다. 이 王이 輪을 돌리면서 引導하면 위엄이 一切를 降伏시키므로 轉輪王이라 한다.” 施設이 만족한 가운데 四種을 설하였다. 金·銀·銅·鐵의 輪으로 구별할 수 있으므로 그 차례는 勝·上·中·下이며 逆次로 王이 되어 一·二·三·四州를 거느린다. 《契經》에 이르기를 “만일 왕이 刹帝利種族에 태어나 灌頂位를 이어 十五日에 齋戒를 받을 때 首身을 목욕하여 훌륭한 齋戒를 받고 高台殿에 오르니 臣僚가 輔佐하였다. 東方에서 홀연히 金輪寶가 나타나는데, 그 輪은 千輻이며, 輞이 구족하고 衆相이 前淨하여 攷匠이 만드는 것과 같으며, 묘한 광명을 퍼서 왕의 처소에 까지 뻗어 있었다. 이 왕은 바로 금륜이며, 다른 전륜왕도 또한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하였고, 《智度論》四에 “轉輪王이 三十二相이 있듯이 보살도 또한 三十二相이 있다는데, 어떻게 차별합나

까.” 대답하기를 “보살의 相은 七事가 있어서 轉輪聖王보다 勝하다. 보살상은 ① 淨好, ② 分明, ③ 不失, ④ 具足, ⑤ 深入, ⑥ 智慧行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지 않음이며, ⑦ 멀리 여윌을 따르는 것인데 전륜왕의 상은 그렇지 않다.”하였다. 전륜대왕은 十王의 第十으로 殿은 幽冥의 沃焦石 밖 正東에 위치하며 바로 世界五濁한 곳을 마주하고 金·銀·玉·石·木板·奈何 등 다리의 六座를 시설하여 各殿에 解到한 鬼魂을 專하여 분별, 핵정발완투생시킨다. 매일 자세한 수를 모아서 기록하고 第一殿의 註册과 대조하여 都에 보낸다 한다.

釋迦如來는 大沙門·釋迦牟尼如來이라 하고 佛教의 教祖로 能仁寂默이라 번역한다. 또는 釋迦文·釋迦라고도 略稱한다. 釋迦는 種族이름이요, 釋迦牟尼라 함은 釋迦氏의 聖者란 뜻이다. 中印度 迦毘羅 伐罕堵의 城主 淨飯王의 太子이다. 어머니는 摩耶夫人, B. C 623年 룸비니동산 無憂樹 아래서 誕生했다. 29歲에 출가하여, 6年 동안 苦行 佛陀伽耶의 菩提樹나무 아래에 大悟徹底하여 佛陀가 되었다. 그 때 나이는 삼십오세였다. 49年 동안의 傳道生活을 마치고 밤중에 涅槃에 들었다. 때는 B. C 544年, 2月 15日, 世壽 80이었다.

黑暗地獄은 어둡침침한 지옥인데 여기서 부모나 스승의 물건을 훔친 자를 심문하고 처벌한다 한다. 黑暗神은 사람에게 災禍를 준다는 여신으로 吉祥天의 여동생인데, 密敎에서는 閻羅王의 妃라 한다.

《千手經》에 “내가 칼산을 향하면 칼산이 저절로 무너지고 부서지게 되기를 원합니다.”²⁶⁾라는 말이 있다. 이 마음의 칼을 부수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독한 마음·憎惡心·分別心を 버려야 한다.

323 사자왕에 經千길이

331 修身齊家 능히하면

337 바라노니 염불동무

339 鰥寡孤獨 구제하여

345 貪心일랑 두지마소

363 月藏經에 하신말씀

324 헛된말씀 있으리까

332 治國安民 하오리다

338 慈善事業 많이하고

340 來生길을 많이닦아

346 부모형제 俱存하고

364 말세중생 億億人이

26) 我若向刀山 刀山自摧折.

365 戒行修道 할지라도

366 得道할니 하나없고

367 多願發心 염불하면

368 極樂간다 하였으니

369 사자왕에 經千說이

370 헛된말씀 하였으라

衆生은 娑婆世界를 살아가면서 착한 마음으로 不義를 행하지 않고 修身齊家하여 治國安民해야 한다. 그리고 鰥寡孤獨 구제하는 慈善事業을 많이 하고 修道하면 得道하여 無常한 人生을 살다가 黃泉길을 가더라도 極樂泉갈 수 있다고 했다.

인간이 사는 시대를 正法時代・末法時代・像法時代 등 3시대로 구분하여 시대성을 설명하고 있다. 말법시대는 이 시대는 이른바 말세를 의미한 것으로서, 道德의이고 倫理的인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자선적인 선행도 하지 않으며 수도자의 깨달음도 어렵다고 한다. 말법시대는 만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때의 인심은 흉악하여 竊盜・詐欺・嫉妬・辱說・強盜・殺人 등 여러 가지 나쁜 짓을 잘하는 시대를 말한다. 말법 시대는 만년의 기간을 말한다. 이때는 계속 세속을 어지럽히는 투쟁과 소란만을 일삼아 罪業을 많이 짓는다.

인간의 마음에 양심은 隱沒해 버리고 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윤리 도덕으로 사회질서를 지키는 계율사상이 없어지는 동시에 산란된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에 대한 계획과 지혜를 성숙시키는 禪定의 마음도 없다.

진리를 가르치는 慧學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스승을 모독하는 五逆罪를 범하고 진리를 비방하며(謗法), 탐내고,성(瞋)내며,무지(痴)를 나타내는 번뇌가 단절되지 않고 伏斷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末法時代는 인간의 생활이 고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며, 성질이 사나워져 서로가 사회의 불안과 공포만을 조성할 뿐 편안하고 안정된 날이 극히 드물다. 말세에 대해서도 시대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무지를 탓해야 한다. 중생은 번뇌만상을 일으키는 無明을 타파하고 자신을 깨우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함을 깨닫고 항상 正道를 지켜 나가면 말세라는 시대의 변화에 구애되지 않고 그에게 행복과 즐거움만이 깃들게 된다는 것이 성현들의 결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라는 말을 의식할 필요 없이 마음을 바로하고 진리로운 행동으로 정법시대를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圓覺經》에 이 세상이 幻인데 그것이 幻인 줄 知하면 곧 覺者가 된다고 하였다.

371 연비연등 미물들도	372 부처님께 教化입어
373 極樂간다 하였거든	374 萬物之中 사람되어
375 聖賢教化 못입을까	376 西城東土 현철들이
377 古今往生 무수한데	378 누가능히 입을열어
379 淨土法門 말씀하리	380 거룩하다 極樂世界
381 十方諸佛 칭찬이요	382 恒沙菩薩 조생하네
383 華嚴經과 法華經은	384 일대始敎 始終이라
385 無上大道 이언만은	386 극락세계 칭찬하라
387 發願懺悔 깊이하여	388 六字念佛 지성으로
389 彌陀聖相 친견하리	390 극락세계 가옵시다.

末尾에서는 만물중에 四生으로 태어나지 않고 人道還生하기가 어려우니 聖賢教化를 받기 위해 淨土法門으로 들어가서 《華嚴經》·《法華經》을 통하여 無上大道를 얻어 六字眞經을 통하여 極樂世界の 교주인 阿彌陀佛을 친견하여 극락으로 가라고 했다.

三期가 말겁이라, 인심은 옛날 같지 않아 경박하고, 세상풍조는 퇴폐 타락하고, 강상 윤리는 죄다 없어지고, 성인의 도로 이루어진 옛문화는 퇴폐하여 오로지 남을 해쳐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일만 능사로 삼고, 마음을 일으키어 억지로 꾸며서 기묘함을 자랑하여, 전에 없는 큰 겁살과 눈앞의 커다란 액운을 빚어내고 있다.²⁷⁾

학식을 구하는 사람은 情欲 文飾이 날마다 增加하지만 修道하는 사람은 정욕과 무식을 날마다 덜어가야 한다. 그것을 덜고 또 덜어서 최후에 무위에 이르게 된다. 無爲하면 도리어 하지 못하는 바가 없게 될 것이다. 天下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²⁸⁾ 일거리를 많게 하면 天下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27) 《醒世晨鐘》下, pp. 173~174.

28) 《老子》48章, “爲學者日益. 爲道者日損, 損之又損之. 以至於無不爲, 將欲取天下者. 恒以無事. 及其有事也. 又不足以取天下矣.

IV. 結 論

本稿에서는 《韓國佛教歌辭》에 수록되어 있는 李璟協이 지은 佛教歌辭 「六甲十王願佛歌」에 나타난 佛教思想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 작품에는 十惡業을 지음으로써 地獄에 가지 말고, 發願懺悔 깊이 하고 지성으로 修道하고 六字念佛하여 極樂世界에 가라고 하고 있다.

極樂은 阿彌陀佛이 살고 있는 極樂 淨土의 세계인데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극히 安樂하고 아무 걱정이 없어 幸福한 세계이다. 金色世界·安樂世界·安養世界라 한다.

地獄은 瞻部州의 땅밑 오백 由旬으로서 鐵圍山의 바깥 변두리 어두운 곳에 있다는 想像의 세계인데 현세에서 악업을 한 자가 死後에 이 곳에 떨어져 苦報를 받는다는 곳이다. 閻魔가 이곳을 주재하며 罪人을 苛責한다. 八大地獄·八寒地獄 등 136종류의 지옥이 있다.

「六甲十王願佛歌」는 十惡業을 지음으로써 가게 되는 지옥을 다스리는 秦廣大王·初江大王·宋帝大王·五官大王·閻羅大王·變成大王·秦山大王·平等大王·都市大王·轉輪大王 등 十王의 단락으로 나누어 노래하였다. 이 十王은 欲界의 6天和 4禪天의 임금으로서 地獄에 있어서 罪의 輕重을 정하는 十位의 王이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富의 축적은 인간의 욕망을 더욱 자극시켰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사고를 더욱 膨脹시켜 오늘의 이 컷전을 따감게 하는 소음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산업의 발달은 밀도 끝도 없는 경쟁사회로 치닫게 만들었고 자원과 자연을 고갈시키고 인간 사회의 투쟁을 유발시켰다. 挫折·不滿·恐怖는 더욱 우리와 가까워지고 모든 이익이나 모든 富의 축적은 이기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세상은 道德이 무너지고 罪惡이 가득차 있으며, 사방에서 간사한 무리와 범죄자 불량배들이 생겨나고, 天災地變과 인간들이 저지르는 재앙으로 도처에서 피해를 입거나 위협을 당하고 있어 진정한 평안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시기에는 「六甲十王願佛歌」를 바르게 이해하여 十惡을 十善으로 바꾸고, 八邪를 짓지 않고 八正道를 실행하면 흉한 일을 길한 일로 바꾸고 어려운 일을 쉬운 결말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또한 眞道를 얻은 후에 진정으로 修道를 하면 地獄을 면하고 極樂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오늘의 사회는 이기적 대립과 반목으로 사악한 폭행이 난무하고 있다. 佛子들이나 「六甲十王願佛歌」를 익힌 사람들은 여기에 과감히 뛰어들어 방황하는 중생들에게 바른길을 인도하고, 강물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며 어둠을 제거하는 광명의 햇불을 들어야 할 때다.

필자는 계속해서 韓國佛教歌辭에 나타난 佛教思想에 대한 연구를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參 考 文 獻

- 金起東, 〈國文學의 佛教思想研究〉, 東國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6.
 金東華, 《佛教教理發達史》, 불교통신교육원, 1983.
- 金聖培, 〈韓國佛教歌謠 研究〉, 東國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6.
 김원식, 《극락과 지옥 사이》, 서린출판사, 1975.
 金石石, 〈佛教의 人生觀〉, 《東西思想의 만남》, 螢雪出版社, 1982.
 金周坤, 〈「三寶歌」 研究〉, 《國學論叢》第1輯, 慶山大 國學研究所, 1995.
 ———, 〈「冥說因果曲」 研究〉, 《嶺南語文學》第24輯, 1993.
 ———, 《韓國佛教歌辭 研究》, 集文堂, 1994.
- 金泰坤 外 5人, 《韓國宗教》, 圓光大 宗教問題研究所, 1973.
 盧汝錫, 〈佛教의 地獄考察〉, 東國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朴石熙 外11名, 《現代와 宗教》, 現代宗教問題研究所, 1985.
 佛教新聞社 編, 《說法》, 우리출판사, 불기2531.
- 성관 스님, 〈불교에서의 苦觀과 苦의 克服〉, 《釋林》 27輯, 1993.
 오형근, 《불교의 영혼과 윤회관》, 새터, 1995.
 元義範, 〈極樂과 天國의 來世觀的 比較〉, 《佛教學報》第6輯, 1969.

이기선, 《지옥도》, 대원사, 1992.

李相寶, 《韓國佛教歌辭全集》, 集文堂, 1980.

李性壽, 《佛門寶鑑》, 法水出版社, 1978.

李英茂, 《韓國의 佛教思想》, 民族文化社, 1987.

崔康賢, 〈佛教文學으로서의 歌辭〉, 《금강》第6輯, 1985.

崔惠淑, 〈佛教의 輪廻思想을 통해서 본 十業說의 實踐的 受容〉, 《석림논총》, 第16輯, 1985.

退翁 性徹, 《禪門正路》, 佛光出版社, 1983.

平川彰, 《현대인을 위한 佛教》, 佛日出版社, 1988.

韓基斗, 《韓國佛教思想研究》, 一志社, 1980.